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

2009년 10월

“상호금융특별회계를 상호금융연합회로 전환해야”

농협 사업구조 개편 방안 정책토론회 10월 13일 개최



연구원은 10월 13일 aT센터 중회의실에서 농협 사업구조 개편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 연구원은 10월 13일 aT센터 중회의실에서 농협 사업구조 개편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개회식에서 오세익 원장은 “농업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협의 역할 변화와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하며,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개진을 통해서 농업인과 농협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길 당부했다.

이어 우리 연구원 황의식 연구위원이 ‘농협 사업구조 개편’이란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현 농협중앙회를 농협경제연합회로 전환하고, 사업은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 연구위원은 “일선조합이 영세하기 때문에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협경제연합회가 일선조합의 경제사업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는 농협중앙

회의 교육지원사업은 개편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지원사업의 명확한 자금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일선조합의 경제사업을 지원하는 무이자자금과 손실보조 지원, 교육지원사업비는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협동조합의 고유목적사업인 조합합병 인센티브자금, 조합감사위원회, 인력개발 등의 지원사업은 현재보다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또한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분리된 금융사업(금융지주회사)으로부터 이익금의 원활한 분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출자에 대한 배당금, 농협 브랜드네임 사용료, 특수목적사업 부담금 등의 분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연구위원은 “상호금융의 중앙은행 역할을 담당하는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상호금융연합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상호금융특별회계가 독자적인 자본금을 보유하여 건전성을 유지하고, 자금시장 통합법 시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독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펴며, “상호금융연합회를 설치해서 농협금융지주회사의 부족한 자본금을 농협체제 내부에서 조달하도록 농협금융지주회사에 출자를 확대, 장기적으로 상호금융과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종합토론은 건국대 김영철 명예교수의 사회로 열려 농민연합 김진범 사무총장, 농림수산물식품부 남태현 농업금융과장, 농협중앙회 류근원 상무, 우리 연구원 박성재 부원장, 서울경제 박시룡 논설실장, 음성축협 이경호 조합장, 고려대 한두봉 교수가 지정토론을 했다.

추계 전직원 수련회 개최

연구원은 10월 15일 코바코연수원에서 전직원 단합과 체력단련을 위해 2009년 추계 수련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련회는 A조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글로벌협력연구본부, 부원장실, B조 농식품정책연구본부, 행정실, C조 농업관측정보센터, 미래정책연구실, 산림정책연구실, D조 기획조정실, 농촌정보문화센터, 원장실, 감사담당, 벤처농기업 등 4개 조로 나눠 축구, 배구, 발야구 등 운동경기를 하면서 친목과 체력을 다졌다. 이날 우승은 B조, 준우승은 A조가 차지했다. 수련회는 시중 화기에애하게 진행되었고, 직원 간에 벽을 허물고 이해하며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다.

농업관측정보센터 설립 10주년 기념 행사 가져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발전 방향 모색



농업관측정보센터 설립 10주년을 맞아 10월 20일 aT센터 중회의실에서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농업관측정보센터 설립 10주년을 맞아 10월 20일 aT센터 중회의실에서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개회식에서 오세익 원장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설립 1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를 향해 한걸음 도약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의 김정호 센터장은 ‘농업관측 10년의 평가와 과제’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10년 동안 운영해 온 농업관측사업 전반에 대해 발표하며, “2008년 서울대에서 분석한 결과 농업관측사업의 사회기여 효과가 14개 품목 1,28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보험연구원 이진면 박사는 ‘경제전망 분석과 농업관측 활용’이란 제목으로, 한신대학교 한근식 교수는 ‘통계자료 분석과 농업관측 활용’이란 제목으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BnT 솔루션 민병걸 이사가 ‘인공위성 정보와 농업관측 활용’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종합토론은 GS&J 이정환 이사장의 사회로 열려 서울대 김관수 교수, 삼성경제연구소 김화년 수석연구원, 대전농업기술센터 서진석 지도사, 해양수산개발원 옥영수 수산업관측센터장, 농수축산신문 최기수 편집국장, 건국대학교 한성일 교수가 토론을 했다.

aT센터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기념만찬에서 김정호 농업관측정보센터장이 10년 추진경과를 발표하고, 오세익 원장이 농업관측정보센터 초대 센터장을 지낸 GS&J 이정환 이사장과 농림수산식품

부 권영욱 사무관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이어 10주년 기념 떡 절단식과 농업관측정보센터 설립 10년의 추억 영상을 상영했다.

농경토론회 개최

연구원은 10월 16일 중회의실에서 농경토론회를 개최해 윤형현 초청연구원이 ‘음식점에서 채소를 어떻게 소비하는

가?’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또한 10월 29일에는 김경덕 연구위원이 ‘하나의 아시아, 신 경제 질서 그리고 경기회복’이란 제목으로 발표하고 토론했다.

가을산행과 추계테니스대회 열어

우리 연구원 산악회원 15명은 10월 9일과 10일 가칠봉으로 산행을 했다. 이번 산행코스는 구룡령-갈전곡봉-가칠봉-삼봉자연휴양림에 이르는 10.6km였다. 정우회는 10월 24일 연구원 테니스장에서 2개조로 나눠 추계테니스대회를 개최했다. A조 우승은 전일송, 김현중 조, B조 우승은 박영구, 김창호 조가 차지했다.

□ 전문가 회의 개최

△ 2010년도 과제 발굴 및 국제농업협력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0월 12일 연구동 3층 회의실에서 국제농업협력관련 전문가를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 국제 곡물시장 분석과 수입방식 개선 방안 연구 관련하여 10월 13일 소회의실에서 사료협회, 농협사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민간수입업체 등 전문가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10월 월례조회, 이시형 박사 “열정” 특강



이시형 원장이 ‘열정과 창조적 사고를 위한 조건’이란 제목으로 특강을 했다.

우리 연구원은 10월 1일 대회의실에서 월례조회를 가졌다. 오세익 원장은 취임 1년을 돌아보며 “도농소통과 상생협력, 세계화에 능동 대처하는 연구원”이란 비전을 세우고 5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전직원이 하나가 되어 노력해 각계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오 원장은 “연구원이 더욱 발전하려면 대화가 필요하며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하는 폭을 넓

히고 불신의 벽을 허물어 나가자.”고 역설했다. 또한 비전과 주인의식, 열정을 갖고 소임에 최선을 다 하길 당부했다.

이어 정신과 전문의이자 뇌과학자인 이시형 자연의학종합연구원장이 ‘열정과 창조적 사고를 위한 조건’이란 제목으로 특강을 했다. 이 원장은 나이 들어 하는 공부

가 진짜라고 강조하며, 뇌과학을 토대로 공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소개했다. 이 원장은 “진짜 실력은 진짜 공부에서 나온다.”고 말하며,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창조적 인재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 EU FTA와 농업

최 세 균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의 대EU(유럽연합) 교역 규모는 984억 달러(2008년)로 수출 584억 달러, 수입 400억 달러이다. EU와의 교역 규모는 미국과의 교역 847억 달러(수출 464억 달러, 수입 383억 달러)보다 16.2% 많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EU 무역수지 흑자는 184억 달러로 대미 무역수지 흑자 80억 달러는 물론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 145억 달러보다 많다. EU가 우리나라 최대의 무역수지 흑자 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민감품목 개방수준 한 · 미보다 낮아

이러한 거대 경제권 EU와의 FTA 타결을 계기로 농업계는 다시 긴장하는 분위기이다. 농업계의 가장 큰 우려 가운데 하나는 한 · EU 교역 규모로 볼 때 한 · 미 FTA에 버금가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또한 농업인들은 농산물의 개방 수준과 국내대책에 대하여도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협상 결과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정부와 국회 또는 농민단체 보고 자료를 종합하면, 농산물 분야 시장개방은 전체적으로 한 · 미 FTA와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농산물 수출을 놓고 미국과 경쟁해야 할 EU 입장에서 미국보다 불리한 조건의 협상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개방 수준이 한 · 미 FTA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면, 농산물 가운데 수입 증가와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우려되는 돼지고기의 경우 냉동 삼겹살의 관세 철폐 기간이 10년으로 한 · 미 FTA보다 길게 설정되었다. 그 밖에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양념채소를 현행관세 유지(관세감축 없음)로 가지고 간 것도 미국과의 협상보다 유리하게 협상을 매듭지은 부

분 가운데 하나이다.

가장 중요한 협상 분야였던 축산부문에 한 · 미 FTA와 비교하여 관세철폐 기간은 15년으로 한 · 미 FTA와 같고, 닭고기는 관세 철폐 기간이 한 · 미 FTA보다 1년 연장된 13년이다. 낙농품 가운데 수입량이 많은 분유와 연유는 현행관세가 유지되는 대신 관세할당(TRQ)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치즈는 15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되 TRQ가 제공된다. 결국 축산물 분야의 개방 수준은 전체적으로 한 · 미 FTA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부정적 영향, 한 · 미의 30% 수준

한 · EU FTA 협상이 우리 농업에 영향을 미칠 분야는 주로 축산업과 과수산업으로 예상된다. 과일의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하여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EU는 넓은 지역과 다양한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열대성 과일과 온대성 과일이 생산된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 과일 수출량이 많은 국가도 존재한다. 그러나 병해충 문제로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과일은 많지 않고, EU의 사과, 배 등 주요 온대성 과일은 미국과 비교하더라도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FTA로 발생할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곡물과 채소류의 피해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한 · 미 FTA로 인한 영향의 30% 수준 정도로 예상된다. 미국과의 FTA는 곡물, 축산, 과일 등 다양한 부문에서 우리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데 비해 EU와의 FTA가 미치는 영향은 축산물 등 일부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한 · 미 FTA의 경우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1조 원 정도의

생산액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 · 미 FTA와 한 · EU FTA가 동시에 발효될 경우 미국과 EU의 상호 경쟁에 의해 각각의 FTA 영향을 평가한 것보다 피해의 합은 감소할 것이다. 대EU 교역 규모는 미국과의 교역보다 크지만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이라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대응 방법에 따라 영향은 달라져

부정적 영향은 정부와 생산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정부는 한 · 미 FTA 대책으로 20조 4천억 원 규모의 투융자 계획을 발표하바 있다. 이 가운데 축산분야에 직접적으로 지원될 투융자 규모는 4조 7천억 원에 달한다. 그 밖에 피해보전 직접지불제도와 폐업지원 등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지게 된다. 한 · 미 FTA 대책 이외에 정부는 EU와의 FTA에 따른 추가적인 대책도 준비 중이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방적,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FTA 이행 이전이라도 집행되어야 한다.

미국, EU 등 거대 경제권 국가와의 FTA 이외에 우리나라는 호주, 뉴질랜드 등 축산업 강국과도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브라질, 우루과이 등 남미의 농산물 수출과도 협상이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주요 품목에 대한 시장개방은 10여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시장개방에 대응할 준비 기간은 주어진 셈이다. 농업계는 시장개방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쟁력 향상과 농업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여야 한다. 시장개방으로 인한 위기를 우리나라 농업 발전의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생산자들의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R



농협 사업구조 개편의 쟁점사항

김 미 복 전문연구원

최근 농협이 농협중앙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에 관한 사업구조개편 방안을 제시하는 등 농협 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농협안은 신용사업부터 금융지주회사로 분리하고 자본금을 우선 배정하겠다는 내용이다.

농협경제연합회의 역할

정부의 농협개혁위원회가 건의한 추진 방안과 차이가 있다. 이에 농협 신경분리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 및 쟁점사항의 점검이 필요하다.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가 제기된 요인 중 하나는 중앙회 조직이 비대하여 비효율적이고, 사업기능과 지원기능이 혼재되어 투명한 성과평가가 어렵다는 것이다. 사업분리를 통해 농협경제연합회와 경제지주회사 간의 역할 분담이 정립되어야 사업기능과 지원기능의 역할이 명확해진다. 농협개혁위원회는 농협경제연합회와 경제지주회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농협경제연합회는 비영리조직으로 일선조합을 대표하면서 교육·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경제지주회사는 자회사관리의 역할을 맡아 사업기능을 담당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고, 감사, 교육 등의 비사업적 기능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사업구조 개편 이후 비수익사업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비용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연합회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경제사업에는 비수익사업과 구분하기 어려운 영역이 많다. 일선조합들의 규모가 영세하여 자체적으로 산지유통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품목별 자조금의 관리도 그 하나이다. 이러한 기능은 연합회가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

합회가 현 중앙회와 같이 비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능과 역할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농협경제연합회가 현 농협중앙회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수익을 위한 사업적 기능의 담당보다는 이 기능들을 수행하는 지주회사, 자회사들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교육지원사업 효율화 필요

협동조합은 이해관계가 다른 조합원들이 서로 공동 활동을 해야 하므로 교육지원사업이 중요하다. 서로 협동해야 경쟁력이 강화되므로 농협은 수익사업을 통해 이익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회의 조합원 농가 및 일선조합 발전을 위한 합병 등 지도, 감사, 인력교육, 홍보 역할도 강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일선조합의 사업에 대한 경영 지원이 교육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3조 6천억 원의 자본금으로 무이자 지원하는 조합지원자금과 신용사업에서 차입하여 지원하는 교육지원사업회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런 교육지원사업은 일선조합의 영세한 구조를 유지시키는 부작용이 있다. 산지유통조직의 영세성도 개선의 유인이 없는 것이다. 교육지원사업의 효율화가 필요한 때다.

이제까지의 경영보조 형태를 바꾸어 지원효과가 높은 산지유통조직에 대한 적극적인 자본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경제지주회사와 일선조합 산지유통조직이 서로 수직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전략적 제휴방식의 자본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일선조합에 대한 경영지원은 보조지원보다 사업활성화를 촉진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을 추진하는 데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과제 중 하나는 상호금융의 독립이다. 상호금융은 예수금

만 160조 원으로 일선조합의 토대이기 때문에 지속적 발전이 필요하다. 상호금융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50조 원 규모의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상호금융연합회 도입

일선조합의 금융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상호금융특별회계가 사업구조 개편의 우선순위에 뒤처지는 경우는 없어야 하고 전문화된 독립법인이 필요하다. 이로써 상호금융의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될 것이고, 상호금융의 자본금 보유는 금융기관으로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자통법 시행 이후의 선진 금융기관으로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상호금융연합회의 설립이 인건비 증가, 자본금 확보, 전산비용의 증대 등 비용 면에서 시기상조라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신경분리는 농협의 신용사업 중에서 농협금융지주회사와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분리 또한 포함하고 있다. 결국은 언제 분리할 것인가에 대한 시기의 문제일 뿐 비용의 발생은 불가피한 것이다. 상호금융연합회 설립을 반대하는 농협 역시 장기적으로는 상호금융연합회를 포함한 독립법인의 당위성에는 동의하고 있는 바, 독립법인이 상호금융의 전문성과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함은 분명하다.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독립법인이 아닌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역할이 강화될수록 향후 농협경제연합회의 신경분리 주장이 다시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농협경제연합회의 정체성이 본래의 역할보다 상호금융연합회의 성격에 강하게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상호금융연합회를 독립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농업관측 10년; 성과와 과제

김 정 호 선임연구위원

농업관측센터가 출범한 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인력과 예산 및 사업이 크게 늘고 현장 활용도 높아 명실공히 농업관측 전문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62년에 국가재건최고위원회에서 농업관측의 필요성이 제기된 후, 당시 농림부에서 사업 추진을 검토하여 조사 역량이 갖추어진 농협중앙회에 위촉하여 시작하였다. 1967년에 제정된 농업기본법에서 농업관측 실시를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1970년대 들어 관측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이 강조되었고, 농업통계가 정비되면서 관측 업무가 농협에서 농림부로 이관되었다.

2000년에 농업관측 전담기관으로 지정

우리 연구원은 1980년부터 농산물 수급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1990년부터는 농림수산부 의뢰를 받아 농업관측협의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5년부터는 농안기금 지원으로 농업관측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1996년 9월부터는 관측월보를 발간하여 배포하게 되었다. 정부는 1998년 10월에 농업관측 전담기구 설치를 검토하게 되었으며, 1999년 1월에 우리 연구원은 농업관측센터를 발족시켰다. 그리고 2000년에 제정된 “농수산물 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서 농업관측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게 되었다.

농업관측센터가 설치된 1999년에는 채소 6개 품목과 과일 3개 품목에 대한 월보를 발간하는 수준이었다. 2000년에는 축협중앙회로부터 축산관측을 이관받았으며, 그 후 매년 관측 품목을 추가하여 2009년 현재 29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측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내년에는 버섯과 오리를 추가할 계획이다.

농업관측사업의 주요 목적은 주요 농축산물의 재배, 작황, 생산, 출하, 재고,

소비 동향 및 해외시장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단기·장기 수급 및 가격 예측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축산물 수급 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현재 수행 중인 농업관측 사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단기 관측은 곡물류(쌀, 콩), 채소류(배추, 무, 풋고추, 건고추, 마늘, 양파, 파, 감자, 당근, 양배추), 과일류(사과, 배, 포도, 감귤, 단감, 복숭아), 과채류(오이, 수박, 참외, 호박, 토마토, 딸기), 축산류(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등 29개 농축산물 품목에 대한 수급 및 가격을 전망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공표하고 있다. 또한 중기 관측으로 거시경제, 농업·농촌경제 및 농축산물의 품목별 동향과 전망을 분기별로 분석하여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장기 관측으로 매년 1월 하순에 농업전망대회를 개최하여 거시경제와 농업·농촌경제 및 농축산물의 국내외 수급에 대한 장기 전망치를 발표하고 있다.

10년 동안 농업관측 기능이 크게 확대

또한 금년 하반기부터는 중기선행관측을 실시하고 있다. 현행 농업관측이 유통물량 조절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차기 작형의 재배 및 생산조절 기능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농축산물이 출하하기 3~4개월 전에 미리 가격 및 수급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생산규모 조절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나아가 농축산물 가격에 대한 조기예보시스템(EWS)을 구축하여 수급안정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그 밖에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소비자 정보를 조사·분석하는 소비관측 사업, 수입 곡물인 밀, 옥수수, 대두 등에 대한 국제곡물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인공위성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위성정보 사업 등 농업관측의 기능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학적인 농업관측을 위한 조사 및 분석 방법도 크게 개선되어 매뉴얼로 체계화되어 있다. 먼저, 자료 수집 단계에서 표본농가, 모니터, 종묘업체, 저장업체, 수출업체, 해외모니터 등으로부터 기초 데이터가 연구자의 손에 들어온다. 이들 자료를 가지고 품목별 전년대비 재배면적 및 생산량·출하량을 분석하고 지역별 단수를 도출하며, 출하시기별 출하량 추정과 저장업체의 저장량 및 출하의향을 조사하여 국내 총공급량을 추정하는 분석 단계를 거친다. 이렇게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격 추정모형을 이용하여 품목별 가격 전망치를 산출하고, 지역자문회의 및 현지조사와 중앙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 것이다.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

현재 농업관측 정보는 월보·분기보와 속보, 인터넷 홈페이지, 단문자서비스(SMS), 전자우편 등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의 생산·출하량 조절을 유도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정부의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이용되고 있다. 또한 지역농협, 농업기술센터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영농교육·지도 활동의 교재로도 활용되고 있다.

앞으로 농업관측센터는 관측정보의 수집·분석·예측력을 높이고 관측의 정밀성·적시성·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외적에서 인정받는 농업관측 전문기관으로서 농산물 수급 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R

중국, 농촌의 내수확대와 도시 고용불안 흡수

김태곤 연구위원

중국은 올해 10월 1일 건국 60주년을 맞이하여 천안문 광장에서 거창한 군사행진을 가졌다. 반면에 중국 농촌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호황기를 맞고 있다. 금융위기의 한파로 대미 수출이 감소하고 국내 경제성장이 둔화함에 따라 고용불안과 실업이 증가하고, 특히 농민공의 고용불안이 현재화되고 있다.

농민공은 농민신분으로 도시에 취업한 일종의 비정규직 근로자이다. 도시지역에 취업을 해도 도시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고용이 불안하고, 의무교육이나 사회보장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 금융위기 한파로 농민공의 고용불안 현재화

현재 7억 2,000만 명의 농촌인구 중에서 2억 2,000만 명이 농민공이다. 제조업 근로자의 60%, 건설 노동자의 80%를 차지한다. 농민공은 일반근로자에 비해 급여수준이나 고용조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농민공 중 도시지역 취업자가 1억 3,000만 명이며, 이 중에서 2,000만 명이 도시에서 실직하여 농촌으로의 귀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국무원의 귀향하는 농민공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각종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기업부담을 경감하여 농민공에 대한 취업 촉진과 고용 안정을 도모한다. 기능훈련과 직업교육을 강화한다. 농민공의 창업활동을 지원하며, 신농촌 건설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한다.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고, 농민공의 영농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등 농촌지역에서 고용 창출에 적극적이다.

올해 초 중앙1호문건은 6년 연속 '3농문제' 해결을 중시하고 있다.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농민의 지속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 '식량생산 유지'와 '농가소득 증대'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식량작물 재배, 우량품종 도입, 농기계와 농업자재 구입 등에 농업생산 보조금을 지불한다. 농촌인프라를 대폭 정비하고, 농민공의 창업을 지원한다. 그리고 농민들의 가전제품 구입에 보조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가 다양한 용도의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다.

그 결과 식량생산은 2004년 이후 증산이 계속되어 지난해 세계적인 식량위기 상황에서도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였다. 또한 도시 실업문제도 농촌지역에서 흡수하고 있다. 그렇지만 소득문제는 좀처럼 해결될 것 같지가 않다.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2008년도 도시·농촌 주민 1인당 소득격차는 3.33배로서 양자간의 격차는 여전히 확대되고 있다.

농민의 가전제품 구입에 대한 보조는 호평을 받고 있다. 농민

의 가전 구입을 지원하여 내수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농민이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세탁기, 휴대전화, 오토바이, 컴퓨터, 운수기, 에어컨 등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가격의 13%를 보조한다. 지원 상한은 있지만 재정부담은 국가 80%, 지자체 20%로 분담한다.

현재 중국 내에서는 가전제품 과잉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전 보조를 향후 4년간 실시하여 도시지역의 가전 과잉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도시와 농촌 간 가전보급 격차를 현재의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농업으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의 기초를 만들어가는 동시에 농촌지역이 가지는 내수 확대의 잠재력을 살려서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전략이다.


농민을 중시하는 또 하나의 움직임이 있다.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대표 선출방법을 개선하여 농촌의 발언권을 높이는 제도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전인대 대표는 3,000명에 달하지만 이 중 농민 대표는 3%에 불과하다. 대표 1명을 선출하는 인구수가 농촌이 도시보다 4배나 많은 불균등한 선출방법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즉 농촌·도시간 대표선출 인구비율을 현재 4대 1에서 최종적으로 1대 1로 개선, 농민 대표를 대폭 늘려 발언권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치개혁을 10월 27일 개최되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착수하여 내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농촌 현장의 소리를 가급적 국정 전반으로 광범위하게 반영하여 농민 불만을 해소하려는 배려다.

중국에서 3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은 2003년 이후 계속되고 있다. 배경에는 시장개방 확대와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부작용이 농업·농촌에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직접지불제를 비롯하여, 농업세 폐지와 각종 부담 경감, 신농촌 건설 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농촌의 내수확대와 고용창출로 경제위기 극복

세계 금융위기에 의해 파생되는 성장 둔화와 수출 감소, 고용 불안에 대응하여 중국 사회는 농업·농촌에 새로운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도시지역이나 공업부문에서 발생하는 과잉문제를 고용문제를 농업·농촌이 흡수하는 역할이다.

중국 농촌은 농민공의 창업 지원을 통한 고용창출, 공업제품 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수 확대 등을 통하여 도시·공업문제를 흡수하는 완충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중국의 지도자는 농민 발언권을 높이는 정치개혁까지 시도하고 있다. 

10월 주요 농업 · 농정 동향

2010년 농림수산식품 예산 편성안

9월 28일 국무회의에서 '2010년도 국가 예산안' 이 심의 · 의결되었다. 2010년 전체 예산 규모는 291조 8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2.5% 증가했다. 이중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은 17.2조 원(산하기관 예산 포함)으로 올해 예산 16.9조원보다 2.1% 늘었다.

올해보다 증가한 내년도 농림수산식품 예산 부문은 양곡관리 및 농산물 유통분야 (3조 2,478억 원), 농업생산기반 관련 예산 (2조 3,070억 원), 친환경비료 구입 지원비 (2,314억 원), 식품산업 관련 예산 (5,652억 원) 등이다. 반면, 감소한 부문은 농업체질 강화 (2조 3,681억 원),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2조 5,589억 원),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1조 6,977억 원) 등이다. 한편, 군인생일용 쌀떡 케이크 지급 (47억 원), 녹색에너지를 이용한 시설원예농업 지원 (1,320억 원) 등의 부문은 신규로 편성되었다.

수혜자별 주요 혜택 내용을 보면, 농림수산업의 녹색산업화를 위해 지열 · 목재펠릿 등 친환경 난방시설 설치를 원하는 시설원에 농가에 대해 설치비의 80%를 지원하며, 우량종자의 국내 생산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량종자의 생산비 50%도 국가에서 지원한다. 또한, 농어촌 노후주택의 리모델링을 원하는 농어촌 주민 또는 농어촌 이주자는 농협으로부터 최대 5,000만원까지 저리로 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고, 더 이상 농사짓기가 어려운 고령농이 소유한 토지나, 농업을 그만둔 농가가 보유한 농지를 정부가 나서서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해 준다.

한편, 농림수산식품 이외 주요부문 예산 편성안은 △보건 · 복지 81조 원 △일반공공행정 49.5조 원 △교육 37.8조 원 △국방 (일반회계) 29.6조 원 △사회간접자본(SOC) 24.8조 원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14.4조 원 △R&D 13.6조 원 △공공질서 · 안전 12.9조 원 △환경 5.4조 원 △문화 · 체육 · 관광 3.7조 원 △통일 · 외교 3.4조 원 등이다.

한 · EU FTA 가서명

한 · EU 양국 통상장관은 지난 10월 15일 한 · EU FTA에 가서명했다. EU는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이 987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교역액의 11.5%를 차지하는 등 중국에 이어 교역규모 2위의 경제블록이며, 양국은 2007년 5월 FTA 협상 개시 후 2년간 8차례의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FTA 최종협약안에서 우리나라는 총 1,449개 농산물 품목(HSK 기준) 중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추, 마늘, 양파 등 9개 품목은 현행관세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냉동삼겹살, 쇠고기, 사과, 배 등 458개 품목은 관세 존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했으며, 분유는 현행관세를 유지하고 치즈 등 일부 낙농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10년 이상에 걸쳐 폐지하면서 무관세물량을 배정하기로 했다. 오렌지, 포도 등은 같은 북반구 국가로서 생산 · 유통기간이 비슷한 점을 감안, 우리 수출하기에는 현행관세를 유지하거나 관세를 장기간 완만하게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EU는 대부분의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5년 이내에 폐지하기로 했으며, 대 EU 주요 수출품목인 라면, 비스켓, 간장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즉시 폐지하기로 하였다.

향후 양국은 협정문을 공개하고 23개국 언어로 번역 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정식 서명을 할 예정이다. 정식 서명 후 양국은 의회승인 등 국내 절차를 완료하여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쌀값 안정 대책

농림수산식품부는 수확기 쌀 매입물량을 대폭작이었던 지난해의 247만톤보다 23만톤이 늘어난 270만톤 이상을 매입해 산지 유통업체의 매입 심리를 살리고, 농가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올해 쌀 수확량은 평년작 457만톤보다는 많지만 전년 수준 484만톤에는 못 미치는 465만톤 내외의 풍작인 것으로 전망되며, 소비량이 437만톤 수준으로 예상됨에 따라 약 28만톤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물량 37만톤 중 학교급식, 군수용 등 기본적으로 방출해야 하는 공공물량 19만톤을 제외한 18만톤은 시장에 공매를 하지 않고 비축해 격리하고, 나머지 잉여물량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를 통해 시장에서 매입해 격리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농가에서 출하하려는 쌀이 최대한 매입될 수 있도록 시 · 군에 '벼 매입 지원센터'를 운영, 부당하게 매입을 기피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에 대해서는 매입자금 지원을 중단한다. 또한, 벼 매입자금 지원 금리도 인하나한다. 1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정부의 벼 매입자금 지원 금리를, 수확기 매입량이 전년보다 15% 늘어나는 RPC 등의 경우 2%에서 무이자로 인하하며, 거래 형태는 수탁판매 방식을 대폭 확대해 매입량을 늘릴 예정이다.

쌀 수요확대 정책도 함께 시행된다. 정부 재고 중 일부를 주정용(술) 등 쌀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특별 처분하고, 군장병 생일 때 쌀 케이크를 전달하며, 밀가루에서 쌀로 손쉽게 대체가 가능한 품목인 고추장, 떡볶이 떡 등에 쌀 사용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아침밥 먹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교 급식으로 쌀자장면, 쌀국수, 쌀밥 등을 공급하는 방안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리: 미래정책연구실>

합천에서 현장토론회 개최, 유통회사 활성화 방안 모색



연구원은 경남 합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10월 23일 제6차 KREI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 연구원은 10월 23일 경남 합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6차 KREI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오세익 원장, 김병률 미래정책연구실장 등 연구원 관계자와 이태환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문철 합천유통(주) 상임이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합천군 유통회사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생산자와 유통회사 및 농협의 원활한 가격협상,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현대화 등을 중심으로 토론했다. 오세익 원장은 “합천군 유통회사가 타 지역의 모범적 사례가 되고 있으며 현장의 건의사항이 연구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0월 24일에는 합천유통(주), 첫눈에반한딸기 유통센터, 합천 울곡농협 APC, 딸기 농가 등 농산물 생산 및 유통시설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 KREI 10월 발간물

- △ 협동조합 선진화 방안 연구
- △ 목재 펠릿의 이용 활성화 방안
- △ (속보) 일본의 정권교체와 농정전망, 식물공장의 동향과 전망

▣ 연구진 동정

- △ 박시현 선임연구위원은 10월 12일 농촌진흥청 국제농업기술협력센터에서 열린 교육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과 농업·농촌 정책’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 △ 김병률 연구위원은 10월 27일과 28일 제주 KAL호텔에서 열린 농수산물도

매법인협회 연수회에서 ‘농정비전과 유통’이란 제목으로 특강을 했다.

- △ 허덕 연구위원은 10월 6일 의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의성농업대학 강사로 참여하여 ‘한우수급 및 가격과 동향’이란 제목으로 강의했다. 10월 30일에는 경상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생을 대상으로 ‘낙농산업의 발전 방안’이란 제목으로 강의했다.
- △ 김창길 연구위원은 10월 5일 경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열린 경북 생태유기

농업 육성 토론회에서 ‘선진국의 유기농업현황과 지역활성화 사례’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 △ 박문호 연구위원은 10월 27일 서울역 사박물관에서 열린 제38차 서울 차(茶)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 녹차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확대 방안’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 △ 김경필 연구위원은 10월 12일 충북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극동러시아 시장 농산물 수출사례와 시사점’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 △ 신용광 부연구위원은 10월 19일 일본 후쿠오카시에서 열린 제4회 한중일 국제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했다.
- △ 성주인 전문연구원은 10월 8일 aT센터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농촌활성화를 위한 경관의 보존과 활용’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 연구원 인사

- △ <승진> △연구위원 김경필, 이상민, △부연구위원 전상곤, △1급관리원 허상성
- △ <임용> △연구위원 김창호, 김성승, 정대희, 박영규, 최익창, 허정희 △행정조원 전형주

농촌연구자문단, 확대기조위 열어 2010년 기본연구과제 심의·발굴



연구과제 심의·발굴을 위한 확대기조위를 10월 22일 연구원에서 개최했다.

연구원은 2010년도 연구과제 심의·발굴을 위해 10월 13일 잠실롯데호텔에서 농촌연구자문단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10월 22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확대기획조정위원회를 열었다.

지난 10월 13일 열린 농촌연구자문단회의에는 농민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15명이 참석, 오세익 원장 사회로 회의가 열려 강

창용 기획조정실장이 연구사업과 연구원 운영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2010년 과제 제안과 농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10월 22일에 열린 확대기획조정위원회에는 정부와 학계, 언론계 및 유관 연구기

관 관계자와 우리 연구원의 기획조정위원이 함께 참석해 내년도 기본연구과제를 심의하고 선정했다. 이날 회의는 박성재 부원장의 사회로 열려, 강창용 기획조정실장이 2010년도 기본연구사업(안)에 대해 설명한 뒤 기본연구과제와 향후 추진해야 할 연구사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